

다산포럼

‘편의점 아저씨’ 김능환



송재소
성공관대 명예교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능환 전 위원장이 두 번이나 우리를 놀라게 했다. 첫 번째는, 퇴임 후 아내가 운영하는 편의점의 ‘알바생’으로 일한 것이다. 법조계 고위 공직자가 퇴임 후 ‘전관예우’의 관행에 따라 공장 로펌으로 직행하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의 행보는 충격적이었다.

대법관까지 지낸 그에게 거액의 연봉이 보장된 로펌의 유혹이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이를 뿌리치고 “동네 서점을 운영하면서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펼쳤을 때 우리는 잔잔한 감동을 받았다.

기고

헌법국가의 책임과 중복세력에 대한 단상



문현철
초당대학교 교수

헌법은 법 중의 법이다. 그래서 일반법들은 국민을 대신하여 국회의원들이 만들지만, 헌법은 국민이 투표를 통해 직접 제정하거나 개정한다.

국민의 직접 투표에 의하여 제정된 헌법은 국가운영시스템과 국가통치기구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헌법에 위반되는 정당, 법령이나 공권력의 집행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그 효력을 정지시킨다.

대한민국의 국가운영의 핵심은 헌법 전문과 헌법 제8조의 민주적 기본질서이고 모든 국정운영의 목표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 그리고 행복추구이다. 따라서 모든 공권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 추구를 전제로 하는 공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며, 그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공권력인 것이다.

기고

창조경제의 성과 산업단지에 달려있다



이현수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장

‘새로운 산업혁명!’ 작가 크리스 앤더슨이 올해 내놓은 ‘메이커스(Makers)’에 나오는 말이다. 앞으로는 누구나 생활 속의 아이디어만 제공해도 제품생산, 유통, 판매까지 쉽게 이뤄질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다. 새로운 제조업 혁명의 시대가 온 것이다.

지난 두 차례의 세계금융위기는 여러 나라들로 하여금 제조업 재건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제조업을 등한시 하고 금융 등 다른 분야에서 국가 창출의 묘를 찾으려 했던 몇몇 국가들은 국가부도의 위기에까지 내몰리기도 했다. 이미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제조업 부흥정책을 강력하게 추진중이고 일본, 독일 등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도 제조업 지원에 힘을 더하고 있다.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제조업의 부흥이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창조경제 제조업의 발전이다.

지식기반시대의 제조업은 창의성으로 무장한 첨단 IT기술, 문화콘텐츠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양산하고 있다. 신발

을 추종하는 세력을 일컫는다. 결국 이들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를 부자는 사람들이다. 문제는 그들이 이미 입법부인 국회에 진출해 있다. ‘농담’이었다고 소름끼치는 미소를 보이는 공당의 대표가 과연 법과대학에서 헌법과 법률을 공부한 변호사인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스럽다.

둘째, 이석기 등의 내란음모 중복세력에 대하여 일회일비하는 감정적 대처가 아닌 이미 구축된 시스템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바로 그것은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하여 만든 헌법에 의한 엄중한 대처이다. 내란음모 중복세력들에 대하여 헌법상 위헌정당해산, 형법상 내란음모죄, 국회법상 의원제명, 정당법상 국고지원금 회수 등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보호하는 법적 시스템과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 국정원 등 법률상 책임기관의 엄중하고 차가운 ‘이성’이 작동해야 한다. 국정원과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여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과 중복세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내란음모 중복세력에 대한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의 작동에 대한 분석이다. 중복세력에 대한 대처 문제가 국정원 등 정보보안에 의한 눈에 보이지 않은 업무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적 측면의 선명하고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업무, 강력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무료로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보낼 생각은 없었던 듯하다. 그는 “다른 일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그것도 없고, 평생 해왔던 영역에서 일을 하는 게 맞다고 봤다”라 말했다.

그렇다. 그는 편의점 아닌 ‘다른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가 하려는 ‘다른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의 항상(恒産)이 없었던 것이라 믿고 싶다. 굳이 뺑자 시대의 항상(恒産) 개념을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가 하려고 했던 ‘다른 일’은 무엇일까? 나는 그것이 “동네 서점을 운영하면서 무료 법률상담을 하는” 일이라 믿고 싶다. 그래야 6개월의 편의점 생활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편의점을 떠나면서 그는 “서민의 삶에서 꿈꾸던 만큼의 보람을 느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미래의 어느 날, 동네에서 서점을 운영하며 무료 법률상담 봉사하고 있는 평범한 서민 김능환씨를 보게 되기를 기대한다.

社說

세계수영대회 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다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과정의 공문서 위조사건 수사가 착수 한 달 보름여 만에 관련자 2명을 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광주지검은 9일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김윤석 유치위원회 사무총장과 6급 공무원 한모(여)씨를 구속기소하고, 김윤태 시장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김 총장 등은 유치신청서 초안을 국제수영연맹에 제출하면서 “대구세계육상대회 패처럼 정부가 1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정부보증서에 총리 서명을 스캔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보증서에도 장관 서명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정부나 검찰의 주장처럼 총리와 장관의 서명을 도용해 정부보증서를 위조한 중대한 범죄행위에 분명하다. 국제대회 유치에 있어 전례가 없는 심각한 사례이자 국가의 위상과 신뢰도 추락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치과정의 전후를 살펴보면 정부의 감정적 대응도 닦하지 않을 수 없다. 국무조정실과 문체부가 이 사건에 대해 고강도 감사를 벌여 한씨의 단순한 실수로 잠정 결론지어 놓고도 유치 직후 처음 배든 갑이 검찰 수사 의뢰와 예산 지원 철회라는 데 있다.

수사 의뢰와 절차상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대회를 광주시가 알아서 하라는 것은 행정성 차원에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다. 대구세계육상대회에 정부가 전체 사업비의 50%를 지원하지 않았는가.

김 총장 등은 유치신청서 초안을 국제수영연맹에 제출하면서 “대구세계육상대회 패처럼 정부가 1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정부보증서에 총리 서명을 스캔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보증서에도 장관 서명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정부나 검찰의 주장처럼 총리와 장관의 서명을 도용해 정부보증서를 위조한 중대한 범죄행위에 분명하다. 국제대회 유치에 있어 전례가 없는 심각한 사례이자 국가의 위상과 신뢰도 추락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비엔날레 작품 파손, 관람문화 이래서야

지난 6일 개막해 오는 11월 3일까지 이어지는 ‘2013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전시작품이 다양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흥미로운 소재들이 많아 초반부터 관람객이 몰려 성공을 예감케 했다.

하지만, 행사 벽두부터 관객의 부주의로 작품이 파손되고, 일부 진행이 매끄럽지 못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또한 일부이긴 하나 ‘문화수도’로서 광주 시민의 품격에 걸맞지 않은 관람 태도를 보여 아쉬움을 남겼다.

개막 첫날 광주 출신의 한류스타 유노윤호의 일본 팬 80여 명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등 열기가 뜨거웠다. 일본 팬들은 5000여 만 원 상당의 아트상품을 구매하는가 하면 휴일을 맞아 많은 시민들도 현장을 찾아 축제의 향연에 흠뻑 빠졌다.

그러나 관객들의 의식 결여로 ‘욕에 타’가 노출돼 축제의 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개막 이틀도 지나지 않아 관객의 부

주의로 전시작품 일부가 파손되고, 시민들이 고가의 작품에 손을 대는 바람에 이순조를 진행되고 있다. 전시작품이 다양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흥미로운 소재들이 많아 초반부터 관람객이 몰려 성공을 예감케 했다.

하지만, 행사 벽두부터 관객의 부주의로 작품이 파손되고, 일부 진행이 매끄럽지 못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또한 일부이긴 하나 ‘문화수도’로서 광주 시민의 품격에 걸맞지 않은 관람 태도를 보여 아쉬움을 남겼다.

개막 첫날 광주 출신의 한류스타 유노윤호의 일본 팬 80여 명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등 열기가 뜨거웠다. 일본 팬들은 5000여 만 원 상당의 아트상품을 구매하는가 하면 휴일을 맞아 많은 시민들도 현장을 찾아 축제의 향연에 흠뻑 빠졌다.

그러나 관객들의 의식 결여로 ‘욕에 타’가 노출돼 축제의 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개막 이틀도 지나지 않아 관객의 부

無等鼓

“저렇게 많은 별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 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라.”

이 글을 읽는 당신은 무엇이 먼저 떠오르는가. 어떤 사람은 듀эт ‘유심초’가 불러던 노래를 흥얼거릴지 모르겠다.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성복동 비둘기’로 유명한 김광섭 시인의 시 ‘저녁에’(1969)를 단박에 떠올릴 것이다. 혹은 누군가는 화가 김환기를 생각하지 않을까.

넓은 화폭에 수많은 점들을 찍어넣은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는 김 화백의 대표작이다. 미국 뉴욕에 머물던 1970년, 제1회 한국미술대전에 응모 부탁을 받고 그린 작품이다. 1년 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친구 김광섭이 보낸 시 ‘저녁에’에서 모티브를 따왔다.

신안 안좌도 출신 수화(樹話) 김환기 화백이 탄생 100년을 맞았다. 지난 7월

“저렇게 많은 별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 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라.”

이 글을 읽는 당신은 무엇이 먼저 떠오르는가. 어떤 사람은 듀эт ‘유심초’가 불러던 노래를 흥얼거릴지 모르겠다.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성복동 비둘기’로 유명한 김광섭 시인의 시 ‘저녁에’(1969)를 단박에 떠올릴 것이다. 혹은 누군가는 화가 김환기를 생각하지 않을까.

넓은 화폭에 수많은 점들을 찍어넣은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는 김 화백의 대표작이다. 미국 뉴욕에 머물던 1970년, 제1회 한국미술대전에 응모 부탁을 받고 그린 작품이다. 1년 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친구 김광섭이 보낸 시 ‘저녁에’에서 모티브를 따왔다.

신안 안좌도 출신 수화(樹話) 김환기 화백이 탄생 100년을 맞았다. 지난 7월

수화(樹話) 김환기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泓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국독신청·매달내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매체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 부 2200-612	체육 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육 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 부 2200-616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